



대학의 시대적 소명



양 원 영 | 휘문고 교장

21세기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통용되는 화두는 '경쟁력 강화'이다. 대학 역시 사회의 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 창조 기능을 담당할 두뇌 집단과 급속히 팽창하는 지식 노동자가 창조적 지식과 끊임 없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아 부가 가치를 창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친 권력 지향적 문화와 보신적 성향은, 전문 지식 강화와 창의력에 의한 기술 개발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우수한 학생 두뇌 집단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학·행정학계나 자연계의 유능한 학생들은 인술을 펼치겠다는 미명하에 의학계쪽으로 편중되고 있다. 물론 법학계와 의학계도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독특한 과학 기술과 독창적인 정보를 창출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예속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 의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 또한 내재해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고교 평준화제도와 그 제도 시행 전후의 숭한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으로 순치(馴致)시켜 왔다. 그 결과 지금의 수학 능력 시험과 이어 실시된 논술 고사로 그나마 '사고 훈련의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여겨졌던 '교과서를'에서 '교과서를 통해서'가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학습 자료의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세상과 우주의 이치와 질서를 배우게 되었다. 물론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없지만 수능 시험 역시 미리 제안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답을 찾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무한한 청소년들도 쉬운 문제들만 반복 학습해 '시험 기술'을 연마토록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세계 문화를 선도해갈 역량을 키우는 데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다른 능력인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현재의 점수 따기식 고교 교육으로는 잠재적 능력의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자기가 가장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자발

“

이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대학의 분발이 요구된다.

대학은 창조적 지식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며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화(自發化)하기보다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으로 시험을 잘 치르는 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수용성이 뛰어난 고교 시절에 인생의 좌표를 설정해줄 교양 도서 몇 권 정도 읽을 틈이 없이 영어·수학 등의 교과를 모조리 암기하여 우등생이 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장래뿐만 아니라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량 조사에서 일 년에 5~10권을 읽는다는 학생이 37.8%, 20권 이상이 28%로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학생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책이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나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성담서라는 점이다.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볼거리는 젊은이들이 책을 멀리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런 매체의 상업주의에 편승한 사회의 향락적 분위기 역시 독서 분위기의 황폐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은 대학 입시 제도가 고교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과 대학의 교육 정책에 따라 인재의 질이 결정된다는 대전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현재 대학 측이 어렵사리 실시하는 논술 고사는,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논술 고사로 인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

습 방법과 내용에 혁신을 가져왔다. 단순히 정보·지식의 습득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독서와 사색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논술은 사고력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고 고교 교육의 목적인 참다운 교양을 고취시키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학년도부터는 새로운 입시 제도로 인해 지금까지 대학이 선택적으로 실시해 온 논술 고사마저도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온 제도적 장치가 형해화(形骸化)될지도 모른다. 초등학교부터 열린 교육과 독서를 통한 사고 훈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의 유·무형의 장애 요인으로 말미암아 연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의 시대적 소명은 중차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학은 '유니버시티'란 말이 상징하듯 전공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에 관해서도 다양하게 경험을 쌓는 곳이다. 풍부하고 참신한 창의력은, 다양한 배경 지식을 통한 상상력 속에서 발아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신입생 때만이라도 다양한 독서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기를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독서가 쉽게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보상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때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질 것이다.

대학의 사명은 단순한 지식·정보뿐만 아니라 그

것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독창성을 더하는 것은, 바로 인류 문화 발전의 동인(動因)이다. 창조적 사고가 마멸되어 버린다면 개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라이프」지가 선정한 지난 1,000년을 만든 1백인 중에서 1위로 선정된 에디슨은 15세 때에 디트로이트 도서관의 책을 다 읽었으며,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는 칼 마르크스가 18년 동안 영국 국회 도서관을 개근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 일화가 시사하는 바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외국 기술을 모방하고 흡수하는 데 주력하였던 과학 기술 활동에서 벗어나 창조적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창의력은 단순히 과학자나 예술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변화될 때 지도자들의 각성이 늦었기 때문에 국치를 맞보아야만 했던 역사의 가르침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 이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대학의 분발이 요구된다. 대학은 창조적 지식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며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조차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다면 국민 개개인의 무한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지식 경제화·정보 사회화의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다. **문명**

양원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제2종 교과서 편찬 심의위원 및 EBS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휘문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다.